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경영학과	이름	김XX
파견국가	프랑스	파견도시	낭트
파견대학	Audencia Business School	파견기간	2019 8월 ~ 2020 3월
귀국여부	네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Audencia Business School 은 프랑스 서부에 있는 중소도시인 낭트에 위치하여 낭트 도시 중심에서 살짝 외곽이 위치한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학교는 낭트에 4개의 학교시설이 있고 꽤 괜찮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많은 교환학생 및 해외학생, 프랑스 대학원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 문화적 차이나 일상적인 친절함이 학교의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p>
2019-2학기 수업	<p>저는 첫 학기부터 전공 코스인 MDBIT 코스를 수강하여 총 7개의 수업과 프랑스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전공 수업은 팀 프로젝트 + 기말고사로 평가되며 하루에 점심시간 제외하고 거의 6시간을 듣는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 되다가 세션이 끝나면 기말고사 기간에 수업을 듣고 끝납니다. MDBIT 전공은 Business, Management, Technology 3개를 융합시켜 만들어진 코스이며 주로 컨설팅, 또는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한 전공 수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 Audencia는 전공코스를 구성할 때 프랑스의 기업과 협업하여 실무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 코스에 프로젝트를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 학기에서는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Deloitte France와 협업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Technology 수업이 조금 부족해서 학생들이 피드백을 하긴 했으나 보완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p> <p>프랑스어 수업은 레벨별로 나뉘어 잘 이뤄져 있습니다. 다만 수업이 주로 월, 수 6시 이후에 진행되어 체력적으로 약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업은 친절하게 잘 이뤄지고 들을 만합니다.</p>

2020-1학기 수업	<p>2번째 학기는 마케팅 전공을 선택하여 7개중 6개의 수업을 학기를 중간 정도 진행하다가 COVID-19 여파로 중도포기를 하였습니다. 수업 자체는 기업과 협업한 2개의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 하는 것이 큰 틀이었습니다. 기업으로는 Sodastream와 Chooka 라는 기업의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진행하였고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수업 자체는 꽤나 흥미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업들이었고. 교수님들도 꽤나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다만 약간 어려움이 있다면 외국 학생 특성상 프랑스 기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영어로 된 데이터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프랑스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가진 아이디어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저 또한 최대한 브레인스토밍에선 도움을 주려 했으나 세부적인 디테일 면까지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의 IC Team이 진행을 하여 다양한 이벤트, 여행 같은 것을 준비 해줍니다. 학회비와 같은 형식으로 40유로, 90유로 등 학생이 이용하는 기간에 따라 지불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Audencia 에서 초청 강의, 워크샵, 이력서 등의 커리어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글로벌 기업과 프랑스 기업들을 초청한 포럼도 진행하여 인턴쉽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줍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는 8월 달까지는 맑은 여름 날씨였다면 이후로 기온이 떨어지고 나서는 비,바람 등의 흐린 날씨가 주입니다. 비는 수시로 내리고 바람도 꽤나 심하게 불어서 이 곳에서 우산을 3개가 부러지는 상황도 겪었습니다. 저는 롱패딩과 코트를 챙겨와서 입었는데 주로 롱패딩을 입을 날은 겨울에 가장 추울 때 정말 몇번 말고는 코트에 목도리만 해도 엄청 춥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p>

<p>안전</p>	<p>현지 안전 상황은 엄청 위험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국 친구들이 말해줬을 때 도심에 Commerce 역 근처는 성인 남성이어도 새벽 2~3시 넘어서 돌아다니면 위험하다 하였고 12시가 지나고 성인 여자들은 위험하여 숙소로 가는 방향이 같으면 같이 가달라고 부탁할 정도 였으니 늦은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일은 꽤나 위험합니다. 혹여나 다니더라도 여러 명의 친구들과 골목은 피하고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큰길 위주로만 다니는게 좋습니다.</p>
<p>숙소</p>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 Audencia에는 학교 기숙사가 없고 보통 학생 기숙사나 방 하나를 구해서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보통 5~6월쯤 방을 구해 들어갔지만 저는 7월에 방을 구하여 꽤 비싼 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한 곳은 도시 중심 밑에 있는 낭트 섬에 위치한 Odalys Campus란 곳이었고 전기료 포함 580유로를 매달 지불하였습니다. 그래도 위치상으로는 도시 중심에서 멀지 않고 걸어서 큰 쇼핑몰을 갈수 있는 곳이라 장을 보러 가거나 몇몇 음식점을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위치라 꽤 나쁘지 않은 숙소 였습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 밥은 주로 직접 만들어 오거나, 학교 옆에 있는 학생 식당, 학교 옆에나 트램으로 2정거장 옆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Carrefour, Monoprix에서 파는 간편 식품을 먹는 것이 학교를 다니면서는 주로 먹었던 것이고 기숙사에서 지내면서는 Commerce 역 옆에 있는 Bouffay 역 주변에 있는 아시안 마켓 2곳에서 사는 식재료와 쇼핑몰의 Carrefour에서 산 식재료를 이용하여 직접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1주일에서 1.5주에 한번 정도 장을 보러 다니면서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편입니다.</p>
<p>교통</p>	<p>낭트의 교통은 Tan이라는 곳에서 버스와 트램을 운행합니다. 티켓은 1.7유로에 1시간 이용 하는 티켓과 이를 10장 사는 Carnet이 있고 1달 권도 있으며 1달권 정도의 비용을 할인 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00만원	편도 2회
Fees	없음	
보험료	45만원	DB 손해보험 장기해외유학보험 + 프랑스 집 보험
숙소	580유로 매달	
식비	30유로 매달	
교통비	30유로 매달	
책값	없음	
기타1	79유로	26세 이하 프랑스 기차 무제한 이용권 TGVMax
기타2		
합계	약 1100만원 ~ 1200만원	매달 비용 + 보조금 제외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에는 꽤나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바쁠 것입니다. 프랑스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캠퍼스 프랑스 면접과 대사관 면접까지 2회를 봐야 하고 시간 예약과 시간 엄수 필수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많으니까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에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CAF라는 것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 서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2개를 외교부에 가서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받고 또 이를 프랑스 법원에서 인정해준 공증번역가님께 찾아가서 번역본을 받아 그것들을 모두 CAF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는 매달 173유로 씩 받았습시다.

또 학교에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서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처음으로 타지 생활을 해보는 것이라 생각보다 좀 힘든 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행정처리는 우리나라에 비해 너무 느려서 많이 스트레스 받을 정도였었고 많은 불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수업은 정말 좋았지만 꽤나 타이트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생활 면에서 많은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또 학기 중간에 1주에서 1주반 정도 쉴 때 잠시 영국, 프랑스 여행을 다녀오면서 어느 정도 여유도 같고 좋았습니다. 또한 첫 학기 중 만난 모든 친구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다 같이 잘 어울리고 해서 적응하는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만족스러웠던 한 학기였습니다. 두번째 학기는 첫 학기보다 수업은 만족스러웠지만 전 학기보다 프랑스학생 비율이 더 커서 적응하는데 고생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조금은 더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국제적 사태까지 일어났으니 더 어려웠었죠. 완벽하게 마무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나 프랑스 생활은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문화 경험도 해봤고 수업 방식도 순천향대에서 배우던 것보다 더 실용적으로 잘 이뤄져 있어 매우 만족했습니다. 다만 혹시 다른 학생들이 고려 중이라면 당연히 세부 전공을 배우고 싶은 경영계열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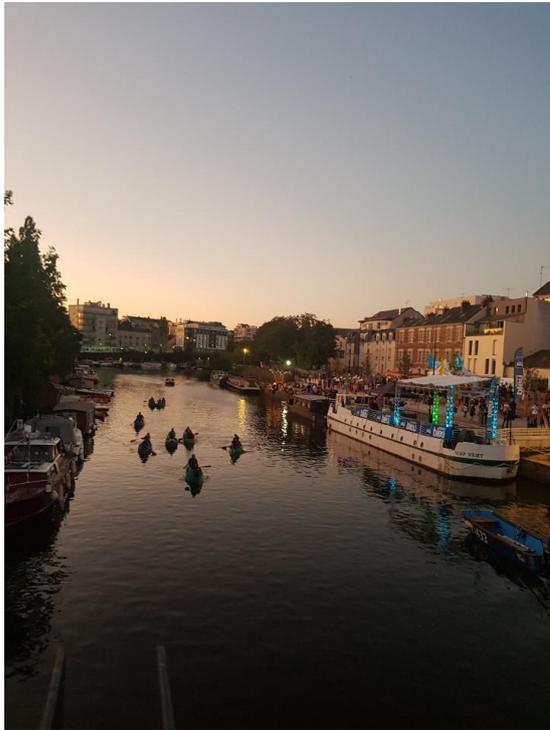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같은 전공 친구들과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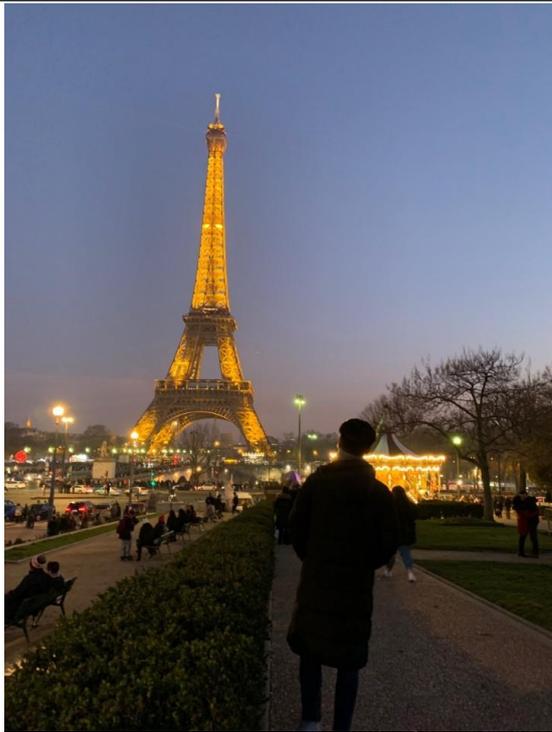
종강 후 크리스마스 시즌 스트라스부르



학기 시작 전 낭트에서 열린
재즈페스티벌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



방학 중 파리 여행



종강 마무리 홈 파티